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9.(목) 11:00 2026. 11. 20.(금) 조간	배포	2026. 11. 19.(목) 06:00

K-스마트농업, 중국 시장 공략한다

- 농식품부-코트라, 내달 20일 중국 중부에서 국내 기업 8개사가 참가한 「2026 중국 중부 스마트농업 붐업 플라자」 개최
- 올해 9월 개최한 「중국 스마트팜 로드쇼」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 신규 시장 개척의 시작부터 계약체결까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KOTRA')는 11월 20일(금)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국내 스마트농업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기위해 「2026 중국 중부 스마트농업 붐업 플라자」를 개최한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스마트팜 기업과 해외 유망시장 구매업체(바이어)와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로드쇼 개최 및 해외 박람회 내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국 후베이성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9월 중국에서 개최한 'K-스마트팜 로드쇼'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국내기업 8개사*가 참여 예정으로 한국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바이어 100여 개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가기업 : 주식회사RXO, 와이앤디인터트레이드, 델타이엔씨, 아메코바이오스, 유비엔, 그린첨단 온실, 주식회사IMC, 와부코리아

특히, 지난 9월 로드쇼에서 체결된 기술·수출 협력 업무협약(MOU) 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서도 해당 기업을 초청하여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고도화 한다. 아울러 실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법률·관세 등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현지 실증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후베이성은 중국 내 농축산업 생산 규모 5위의 대표적 농업 지역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농기계와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환경제어·정밀재배 기술에 강점을 가진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중국 진출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중국은 탄탄한 농업 기반과 높은 농업기계화 수준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장”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스마트팜 기술과 농기자재가 실질적인 수출 및 기술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남현중 (044-201-2471)
		담당자	사무관	방혜정 (044-201-24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